

부정적 성격변인 어둠의 3요소가 초기창업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예비창업가를 중심으로*

안승권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 겸임교수)**

최민정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청년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대학생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정적 성격변인 수준이 초기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학생의 부정적 성격변인은 심리학 대표적인 부정적 성격변인인 어둠의 3요소라고 알려진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초기창업에는 창업이벤트 모델과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하여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창업동기(생산적·비생산적 동기)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 성향만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 성향은 창업효능감에도 유일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시 성향은 창업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동기와 관련하여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 성향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부적(-) 영향, 사이코패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둠의 3요소 중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르시시즘 성향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 창업동기, 비생산적 창업동기

1. 서론

창업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 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세수(稅收)의 증가가 한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Wennekers et al., 2005; Van Praag & Versloot 2007). 국내 정부 역시 창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최근 5년간(2013년 8.0%, 2017년 9.9%)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청년창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통계청, 2018).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에서 창업지원은 작년 대비 11.2%가 증가한 2조 4475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들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2018).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금이 실제 창업이 절실한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을 노리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대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잠시 동안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다(박수호, 2013; 노자운, 2015; 이희수, 2018).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현상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창업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이들은 창업이 절실한 다른 청년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으며 청년창업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그렇다.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예비 창업가들은 실제 창업이 절실한 이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성격요인으로 부정적 성격변인이라고 알려진 어둠의 3요소를 꼽는데, 여기에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성향과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를 연결지어 부정적 성격변인이 초기 창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가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 주저자,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 겸임교수, 770217ask@gmail.com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임연구원, mjchoi1003@hanmail.net

· 투고일: 2018-07-10 · 수정일: 2018-08-08 · 게재확정일: 2018-08-29

지배적인 모델인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하여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그리고 창업동기를 연구의 주요 변수로 포함한다. 그리고 세 가지 부정적 성격변인이 창업의지와 창업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창업동기와 관련하여서는 부정적 성향들이 비생산적 동기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생산적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창업과정에서 부정적 성향을 갖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며, 일부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II장에서 어둠의 3요소,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창업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III장에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IV장에서 가설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V장에서 결론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어둠의 3요소 (Dark Triad)

다크 트리아드 (Dark Triad)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성격유형들 중 하나이다. 명칭에서 세 개가 한 쌍이라는 의미인 ‘트리아드 (Triad)’가 암시하듯 나르시시즘 (Narcissism),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 사이코패시 (Psychopathy) 성향이 하나의 세트이다.

또한 세 가지 성향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 ‘다크 (Dark)’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세 유형 모두에서 차가운 성향, 이중성, 공격성 등의 악의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Paulhus & Williams, 2002). 국내에서는 다크 트리아드를 흔히 세 가지 부정적 성격변인 또는 어둠의 3요소 등으로 부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어둠의 3요소라고 언급하였다.

2.1.1 나르시시즘 (Narcissism)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수스 (Narcissus)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죽게 되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단순한 그리스 신화에서 학술적 용어로 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이병량, 2014). 자기애로 표현되는 나르시시즘은 과거에 정신이상 증상으로 여겨져 치료대상이었지만 1980년을 전후로 정신이상이란 성격 차원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이승운 외, 2015).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한다(Twenge et al, 2008).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위대해서 마땅한 보답이나 사례 없이도 봉사 받거나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Brown et al. 2010).

조직 내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의 리더들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편이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측면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도 긍정적일 수 있다(Higgs, 2009). 하지만 보통은 남용될 가능성이 더 크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추진하여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Campbell et al., 2004). 요약하자면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타인이나 조직을 배려하지 않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것에도 크게 꾀념치 않는 매우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anism)

마키아벨리아니즘 (Machiavellianism) 또는 국내에서는 주로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이라고 불리는 마키아벨리주의는 원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와 상관없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한다는 국가지상주의 기반의 정치 이념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8).

마키아벨리즘은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처음 주장한 개념인데, Christie & Geis(1970)가 정치 및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그들의 추종자들을 조종하는지 연구하면서 마키아벨리즘의 학문적인 개념과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Dahling et al., 2009).

마키아벨리즘은 일반적으로 남을 믿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조작을 일삼으며,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말한다(Dahling et al., 2009).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가치관에 움직이며 돈, 힘, 경쟁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Zettler & Solga, 2013).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겨야 하며(Buckels et al., 2013), 이기기 위해 거짓말, 절도, 부정행위 등과 같은 일탈행동도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Côté et al., 2011).

조직 내에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조직의 순기능을 방해하며, 회사 내 무언가를 훔치는 경향이 높고, 비협조적이며, 직업 만족감이 낮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Greenbaum et al., 2014). 요약하자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본심을 숨긴 채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이고 냉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2.1.3 사이코패시 (Psychopathy)

사이코패시 하면 보통 미치광이나 광기어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연상하지만 실제로 사이코패시는 미치거나 광기어린 등의 표현에 내포된 정신이상 또는 정신질환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이코패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는 이성적인 성향이다(김화성, 2015). 물론 연쇄 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죄자가 사이코패시 성향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덜 극단적인 면허 취소된 의사나 무면허 의사,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 사기꾼 사업가 등도 사이코패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Babiak & Hare, 2006). 사이코패시 성향의 사람들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매사 치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에서 유능하고 매력적인 인재로 보이기도 한다(Boddy et al., 2010).

사이코패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깊이 없는 달변과 매력,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속임수, 타인을 조정하고 기만하기, 죄책감 결여, 무책임성, 강한 충동성과 자극 추구, 공감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Paulhus & Williams, 2002).

Jonason & Krause(2013)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냉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둔감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희생자 또는 동료 약탈자로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나 약탈 등의 비생산적인 활동에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퀵트추구행위’에 거리가 없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과 기업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이코패시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된다(명재규, 2016). 정리하자면 사이코패시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영악하게 타인을 이용하며, 윤리적 기준과 상관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2.2 창업의지

의지가 궁극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지표라는 관점에서 창업의지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창업행동을 예측하는 확실한 지표이다(Piperopoulos & Dimov, 2015).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가장 지배적인 모델은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이다. 첫 번째 모델에서 창업의지는 지각된 욕구와 기회에 대한 행동성향, 지각된 실현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두번째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창업의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두 모델은 일부 유사성으로 인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창업이벤트 모델의 지각된 욕구는 계획행동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며, 창업이벤트 모델의 지각된 실현가능성은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되고 있다(Liñán et al., 2011).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는 자신감, 성취욕구, 창

업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모호성에 대한 인내, 혁신성, 창의성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창업가 개인의 특성,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의 사업화 지원,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요인이 연구되고 있다(Ferreira et al., 2012; Rokhman & Ahamed, 2015; 이범국 외, 2015; 박재환·최민정, 2016; 강선자·변상해, 2017). 이중 창업가 개인의 특성은 초기부터 창업의지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변수 중 하나이다.

Karabulut(2016)는 480명의 터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내적 통제 소재,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업가적 기민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하였다. 강선자·변상해(2017)의 연구에서는 예비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의지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이나 성향 및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초기창업과정에서 창업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2.3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목표하는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창업효능감은 창업자로서 목표하는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창업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주요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창업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이정란·장규순, 2018).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와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실제로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다. 개인의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높은 창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재환·최민정, 2016).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개인적 성향도 그 중 하나이다. 개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창업효능감과 가장 많이 연구된 모델로는 Big 5 성격모델이 있다.

Big 5 성격모델은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개방성과 성실성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존재한다(김해룡, 2008).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유봉호(2013)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 내적 통제 소재 및 내재적 동기, 진취성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하였다. 이처럼 창업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예비창업가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2.4 창업동기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 행위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총칭을 말하는데, 개인의 창업동기는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행동이나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제 요인이다(반성식 외, 2013). 창업동기는 창업 의지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창업기업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개성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연구에 있어서 창업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할 때 창업의지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Carter et al., 2003).

Birley & Westhead(1994)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독립에 대한 욕구, 자기개발 욕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 세금 감면, 역할 모델 등이 창업에 대한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Carter et al.(2003)은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혁신, 인정, 자립, 재정상의 성공, 자기실현이 창업에 대한 주요 동기라고 입증하였다. 양현봉 외(2009)는 창업동기를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누고,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비경제적 요인 중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4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동기(18.8%),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7%)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동기로는 많은 수입에 대한 욕구(22.4%)가 가장 높았고, 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구(1%)가 그 다음 순이었다. 창업에 대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금전적 요인보다 자기발전과 관련된 생산적 요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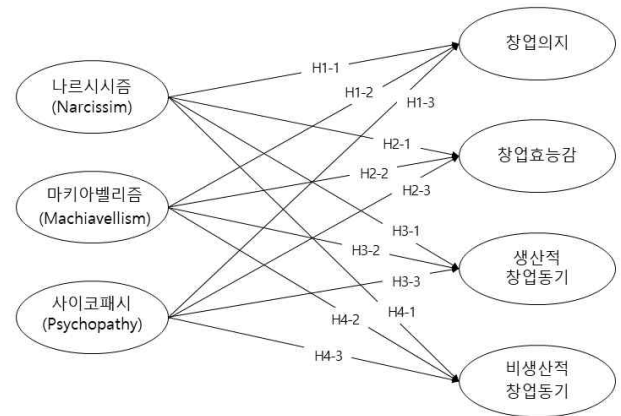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어둠의 3요소인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성향이 초기창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를 독립변수로,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 창업동기, 비생산적 창업동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효능감과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 중 창업효능감과 생산적·비생산적 창업동기는 인과관계상 창업의지에 앞서는 선행변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3요소가 초기창업과 관련된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아래 <그림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어둠의 3요소와 창업의지 및 창업효능감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즐긴다(Twenge et al., 2008). 그들은 도박을 하거나 위험한 금융투자를 하는 등 위험감수성도 높다(Jones,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에게 창업가란 꽤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일 수 있다. 강한 도전정신과 성취욕구 때문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등의 창업가들은 종종 남들의 존경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이 창업의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Mathieu & St-Jean(2013)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삶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에(Campbell et al., 2004) 창업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창업효능감도 높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통제하기를 원하며, 돈과 힘, 경쟁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Zettler & Solga, 2013). 이들에게 창업은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더욱 강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창업은 팀원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직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돈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창업이란 매우 매력적인 직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창업을 성공시키고자 할 것이다. 결국 창업에 대해서도 높은 자신감을 보일 것이다(Côté et al., 2011). 김동조(2007)는 132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성찰과 마키아벨리즘 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유발이 높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특히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보통 무너지고 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Dutton, 2012). 그들은 자극적인 활동에 매력을 느끼며,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다(Hunt et al., 2005).

초기 창업과정에서 창업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들은 지루함과 거리가 멀어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Jonason & Krause, 2013) 팀의 우두머리격인 창업가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Marino & Tucker(2016)는 성별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이코패시 성향이 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창업의지가 더 높다고 입증하였다. 한편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체나 기업 조직의 상위 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스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도덕성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 마디로 자신감이 과도하게 넘치는 유형이다(김병수, 2015). 따라서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창업효능감도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어둠의 3요소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개인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개인의 사이코패시 성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어둠의 3요소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개인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개인의 사이코패시 성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어둠의 3요소와 생산적·비생산적 창업동기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를 생산적으로 평가한다. 창업이라는 자체가 소속된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Hmieleski & Lerner, 2016). 하지만 사회에는 분명 악의적인 동기로 창업을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그럴싸하게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으고, 투자금만 받으면 도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창업가들에 대한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여기에서 사기꾼인 창업가와 피해자인 투자자들의 관계를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는 비생산적 관계로 정의한다. 사회교환이론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교환과정이며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그 관계도 지속된다고 설명하는데, 이 사례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용하여 한 쪽만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양자가 모두 주고받는 교환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는 생산적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를 지향하는 창업동기는 생산적 동기,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그렇지 않은 관계를 지향하는 창업동기는 비생산적 동기에 해당한다(Hmieleski & Lerner, 2016).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관심이 없다(Twenge et al., 2008). 대가 없이 자신의 이익만 취해도 상대방에게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Brown et al., 2010). 그들이 창업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Chatterjee & Hambrick, 2007).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의 사람들에게 창업 동기는 사회를 위한 생산적 동기라기보다는 비생산적 동기와 더 관련이 깊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용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버리고 또 다른 쓸모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선다(Côté et al., 2011).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확실하다면 이들은 단기 투자에 집중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Jonason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질 경우 타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동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생산적 동기에 더 강한 동기부여를 느낄 것이다.

사이코패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수한 달변가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속임수 등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저지르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Paulhus & Williams, 2002).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희생양이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들을 약탈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Jonason & Krause, 2013) 이들의 성향은 생산적 동기와는 부정적인 연관이, 비생산적 동기와는 긍정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어둠의 3요소는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개인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개인의 사이코패시 성향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어둠의 3요소는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개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개인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개인의 사이코패시 성향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어둠의 3요소인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는 Jonason & Webster(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척도들이 불분명한 심리 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택일의 선택적 문항으로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 그리고 3요인에 대한 문항이 총 91개이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들에게 피로함을 주어 응답 오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짧은 버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어둠의 3요소 측정도구는 기존의 문제점 등을 모두 보완하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요인이 각각 4 문항씩 차지한다.

Jonason & Webster(2010)의 연구에 따라 나르시시즘은 남이나 나를 주목하거나 존경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는 자기중심적 성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하거나 조정하는 이기적 성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사이코패시는 다른 사람의 니즈에 무신경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비도덕적 성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창업의지는 Liñán & Chen(2009)이 제시한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 하기를 원한다’와 같은 욕망과 관련된 의지, ‘나는 ~ 만큼의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자기예측과 관련된 의지, 그리고 ‘나는 ~ 할 작정이다’와 같은 행동과 관련된 의지이다. 그들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의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척도를 행동 의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의지의 조작적 정의는 그들의 연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적 의지 (behavioral intention)라고 정의하였다.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이 제시한 단일 항목의 6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는 그들의 연구에 따라 창

업스킬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 다양한 과업을 반영하여 다중 항목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역효과가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단일 항목의 이해하기 쉬운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Wilson et al., 2007). 본 연구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많고, 창업교육을 수강한 기간도 6개월 이하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중 항목보다는 단일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창업동기는 Hmieleski & Lerner(2016)이 생산적 동기 5개 문항과 비생산적 동기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10문제를 활용하였으며, 그들의 연구에 따라 생산적 창업동기는 사회적 생태계에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비생산적 창업동기는 사회적 생태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창업교육경험을 포함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창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입증하고 있으며(Zhao et al., 2005),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으로 성공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입증하고 있다(Piperopoulos & Dimov, 2015)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선행연구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력, 학년, 거주지, 창업상황, 창업교육경험	-	6
독립변수	나르시시즘	Jonason & Webster(2010)	4
	마키아벨리즘		4
	사이코패시		4
종속변수	창업의지	Liñán & Chen(2009)	6
	창업효능감	Wilson et al.(2007)	6
	생산적 창업동기	Hmieleski & Lerner(2016)	5
	비생산적 창업동기		5

3.4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의 효과 통제

동일방법편의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응답자로부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하는데, 일관성 유지 동기나 사회적 바람직성 등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원우 외, 2007). 본 연구 역시 동일한 원인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박원우 외(2007)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각 변수의 측정항목의 순서를 상이하게 배치하여 항목의 점화효과를 줄이고자 하였다. 일반적

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설문의 맥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동일한 질문이라도 제시된 순서에 따라 질문의 의도를 달리 인지하게 된다. 보통은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수월하게 일반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설문을 제시하지만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측정항목의 순서를 상이하게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처리 단계에서는 일반 편이변수의 편제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주성분분석의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변수를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모형 내에서 해당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첫째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점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변수들간의 공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성별과 창업교육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창업교육경험이 이미 통제변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변수를 고려함에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동일방법편의의 요인으로 간주되는 첫째 요인의 변수(성별 및 창업교육경험)를, 2단계에서 독립 변수(자기애,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를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IV.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일부 청년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대학생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정적 성격변인(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수준이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비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 연구이다. 따라서 현재 창업을 이미 한 대학생들은 적절한 연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동기를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현재 취업준비 중 혹은 취업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없는 대학생들도 적절한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 본 연구는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3주간 총 4개의 대학에서 설문을 실시한 후 수집된 352개의 응답 자료 중 ‘창업 1년차’ 7명, ‘창업 2-3년차’ 2명, ‘취업준비 혹은 취업중이거나 창업계획 없음’ 78명을 제외하고 ‘창업 준비 중’이라고 답한 265명의 응답자료만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결국처치 처리방식은 EM대체(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방식을 사용하였다.

최종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124명(46.8%), 여성 141명(53.2%)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 재학이 50명(18.9%), 4년제 대학 재학이 215명(81.1%)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5명(17%), 2학년 192명(72.4%), 3학년 17명(6.4%), 4학년 11명(4.2%)으로 나타났다.

으며, 고학년들보다 저학년들이 더 많았다. 학생들의 거주지는 수도권 69명(26.1%), 충청권 56명(21.1%), 전라권 140명(52.8%)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1개월 이하가 9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가 67명(25.3%), 6개월 이하가 61명(23%), 1년 미만이 32명(12.1%), 1년 이상이 12명(4.5%), 미응답이 1명(0.4%)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24	46.8
	여성	141	53.2
	합계	265	100.0
학력	전문대 재학	50	18.9
	4년제대 재학	215	81.1
	합계	265	100.0
학년	1학년	45	17
	2학년	192	72.4
	3학년	17	6.4
	4학년	11	4.2
	합계	265	100.0
거주지	수도권	69	26.1
	충청권	56	21.1
	전라권	140	52.8
	합계	265	100.0
창업교육경험	1개월 이하	92	34.7
	3개월 이하	67	25.3
	6개월 이하	61	23
	1년 미만	32	12.1
	1년 이상	12	4.5
	미응답	1	0.4
합계	265	10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신뢰도 평가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값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측정 항목에서 내적 일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기준 0.70을 초과하였다. 나르시시즘의 신뢰도는 0.872, 마키아벨리즘의 신뢰도는 0.874, 사이코패시의 신뢰도는 0.737, 창업의지의 신뢰도는 0.906, 창업효능감의 신뢰도는 0.763, 생산적 창업동기의 신뢰도는 0.823, 비생산적 창업 동기의 신뢰도는 0.84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어둠의 3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르시시즘은 1요인 4 문항으로 구성되며, 요인분석결과 KMO 계수는 0.818,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523.685,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

타났다. 나르시시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63.332%로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즘은 1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며, KMO 계수는 0.814,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562.540,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65.134%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시는 1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며, 요인분석결과 KMO 계수는 0.725,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286.484,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47.581%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의지는 1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며 KMO 계수는 0.876,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1073.783,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62.837%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효능감은 1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며, KMO 계수는 0.819,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385.538,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38.27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생산적 창업동기는 1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며, KMO 계수는 0.807,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461.751,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생산적 창업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49.224%로 나타났다. 비생산적 창업동기는 1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며, KMO 계수는 0.796, Bartlett's 구형성 검증은 556.826, 유의수준(p)은 0.000으로 나타났다.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전체 누적 분산설명력은 53.702%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표준적재치	크론바흐 알파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1	.768
	나르시시즘2	.821
	나르시시즘3	.854
	나르시시즘4	.735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1	.754
	마키아벨리즘2	.801
	마키아벨리즘3	.823
	마키아벨리즘4	.847
사이코패시	사이코패시1	.730
	사이코패시2	.791
	사이코패시3	.615
	사이코패시4	.503
창업의지	창업의지1	.611
	창업의지2	.867
	창업의지3	.860
	창업의지4	.848
	창업의지5	.881
	창업의지6	.641
창업효능감	효능감1	.652
	효능감2	.573
	효능감3	.591
	효능감4	.661

생산적 창업동기	효능감5	.725	0.823
	효능감6	.726	
	생산동기1	.635	
	생산동기2	.752	
	생산동기3	.780	
비생산적 창업동기	생산동기4	.702	0.846
	생산동기5	.625	
	비생산동기1	.638	
	비생산동기2	.816	
	비생산동기3	.754	
	비생산동기4	.792	
	비생산동기5	.645	

4.3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 결과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은 마키아벨리즘($r=0.55$), 사이코패시($r=0.28$), 창업의지($r=0.20$), 창업효능감($r=0.34$), 생산적 창업동기($r=0.25$), 비생산적 창업동기($r=0.20$)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즘은 사이코패시($r=0.52$), 창업의지($r=0.14$), 창업효능감($r=0.12$), 비생산적 창업동기($r=0.3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적 창업동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시는 창업효능감($r=0.16$)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생산적 창업동기($r=0.28$)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관련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창업의지는 창업효능감($r=0.46$), 생산적 창업동기($r=0.25$), 비생산적 창업동기($r=0.14$)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은 생산적 창업동기($r=0.27$), 비생산적 창업동기($r=0.13$)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창업동기는 비생산적 창업동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 창업동기	비생산적 창업동기
나르시시즘	1						
마키아벨리즘	0.545***	1					
사이코패시	0.279***	0.522***	1				
창업의지	0.191**	0.144*	0.000	1			
창업효능감	0.336***	0.122*	-0.163**	0.455***	1		
생산적 창업동기	0.253***	-0.036	0.080	0.252***	0.273***	1	
비생산적 창업동기	0.202**	0.349***	0.275***	0.140*	0.132*	0.085	1

* $p<0.05$, ** $p<0.01$, *** $p<0.001$.

4.4 가설 검증

4.4.1 어둠의 3요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어둠의 3요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어둠의 3요소 변인들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R^2=0.08$, $F=4.67(p<0.001)$ 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 비해 모형 설명력이 3.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Delta R^2=0.03$, $p<0.05$). 한편 2단계 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로 기준치인 2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차의 범위가 0.55~1.00, VIF값의 범위가 1.00~1.81로 기준치인 0.01 미만인 공차나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의 3요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5$, $p<0.05$).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어둠의 3요소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둠의 3요소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어둠의 3요소 변인들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R^2=0.30$, $F=21.87(p<0.001)$ 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 비해 모형 설명력이 19.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Delta R^2=0.19$, $p<0.001$). 한편 2단계 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으로 기준치인 2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차의 범위가 0.55~1.00, VIF값의 범위가 1.00~1.81로 기준치인 0.01 미만인 공차나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의 3요소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8$, $p<0.01$).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즘은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며, 사이코패시는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

$p<0.001$). 사이코패시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4.4.3 어둠의 3요소가 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둠의 3요소가 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어둠의 3요소 변인들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R^2=0.09$, $F=5.07(p<0.001)$ 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 비해 모형 설명력이 9.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Delta R^2=0.09$, $p<0.001$). 한편 2단계 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2.13로 기준치인 2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차의 범위가 0.55~1.00, VIF값의 범위가 1.00~1.81로 기준치인 0.01 미만인 공차나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의 3요소가 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5$, $p<0.01$).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생산적 창업동기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즘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2$, $p<0.01$).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생산적 창업동기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사이코패시는 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 어둠의 3요소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둠의 3요소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어둠의 3요소 변인들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R^2=0.15$, $F=9.08(p<0.001)$ 로 나타났으며, 1단계에 비해 모형 설명력이 14.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Delta R^2 = 0.14$, $p<0.001$).

<표 5> 어둠의 3요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창업의지											
	1단계						2단계					
	B	SE	β	t	공차	VIF	B	SE	β	t	공차	VIF
성별	-0.31	0.10	-0.18	-3.04**	1.00	1.00	-0.26	0.10	-0.15	-2.49*	0.96	1.04
창업 교육 경험	-0.05	0.02	-0.12	-2.02*	1.00	1.00	-0.04	0.02	-0.11	-1.80	0.98	1.03
나르시시즘							0.14	0.07	0.15	2.06*	0.65	1.55
마키아벨리즘							0.10	0.09	0.09	1.11	0.55	1.81
사이코패시							-0.10	0.10	-0.08	-0.98	0.60	1.66
F	7.02***						4.67***					
R ²	0.05						0.08					
Adj. R ²	0.04						0.07					
ΔR^2	0.03*											

* $p<0.05$, ** $p<0.01$, *** $p<0.001$.

<표 6> 어둠의 3요소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창업효능감											
	1단계						2단계					
	B	SE	β	t	공차	VIF	B	SE	β	t	공차	VIF
성별	-0.26	0.07	-0.23	-3.95***	1.00	1.00	-0.17	0.06	-0.15	-2.86**	0.96	1.04
창업 교육 경험	-0.06	0.01	-0.22	-3.73***	1.00	1.00	-0.04	0.01	-0.17	-3.22**	0.98	1.03
나르시시즘							0.29	0.04	0.48	7.46***	0.65	1.55
마키아벨리즘							0.03	0.05	0.04	0.53	0.55	1.81
사이코패시							-0.29	0.06	-0.33	-4.94***	0.60	1.66
F	15.60***						21.87***					
R ²	0.11						0.30					
Adj. R ²	0.10						0.29					
ΔR^2	0.19***											

* p<.05, **p<.01, ***p<.001.

<표 7> 어둠의 3요소가 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산적 창업동기											
	1단계						2단계					
	B	SE	β	t	공차	VIF	B	SE	β	t	공차	VIF
성별	-0.08	0.09	-0.06	-0.97	1.00	1.00	-0.02	0.08	-0.02	-0.29	0.96	1.04
창업 교육 경험	-0.01	0.02	-0.03	-0.50	1.00	1.00	-0.01	0.02	-0.02	-0.35	0.98	1.03
나르시시즘							0.26	0.05	0.35	4.76***	0.65	1.55
마키아벨리즘							-0.20	0.07	-0.22	-2.77**	0.55	1.81
사이코패시							-0.02	0.08	-0.02	-0.21	0.60	1.66
F	0.63						5.07					
R ²	0.01						0.09					
Adj. R ²	0.00						0.07					
ΔR^2	0.09***											

* p<.05, **p<.01, ***p<.001.

<표 8> 어둠의 3요소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생산적 창업동기											
	1단계						2단계					
	B	SE	β	t	공차	VIF	B	SE	β	t	공차	VIF
성별	-0.07	0.10	-0.05	-0.76	1.00	1.00	-0.04	0.09	-0.03	-0.45	0.96	1.04
창업 교육 경험	-0.04	0.02	-0.11	-1.78	1.00	1.00	-0.04	0.02	-0.12	-2.13*	0.98	1.03
나르시시즘							-0.03	0.06	-0.04	-0.50	0.65	1.55
마키아벨리즘							0.27	0.08	0.27	3.45**	0.55	1.81
사이코패시							0.20	0.09	0.17	2.23*	0.60	1.66
F	1.96						9.08					
R ²	0.01						0.15					
Adj. R ²	0.01						0.13					
ΔR^2	0.14***											

* p<.05, **p<.01, ***p<.001.

한편 2단계 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2.03으로 기준치인 2에 근사한 값을 보였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차의 범위가 0.55~1.00, VIF값의 범위가 1.00~1.81로 기준치인 0.01 미만인 공차나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의 3요소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즘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7, p < 0.01$).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생산적 창업동기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이코패시 또한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7, p < 0.05$). 사이코패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생산적 창업동기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V. 결론

5.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정적 성격변인 어둠의 3요소(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가 초기 창업활동(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만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두 성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우월하다고 믿으며, 위험감수성도 높다(Twenge et al, 2008; Jones, 2013). 이러한 특징 때문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반면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관심이나 주목을 증시하지 않으며, 타인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이

득을 취하는데 관심이 많다(Jonason & Krause, 2013).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창업보다 좀 더 쉬운, 기존 조직에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에 창업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은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이코패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키아벨리즘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삶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Campbell et al., 2004). 이러한 특징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코패시는 자신이 모든 일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이다(김병수, 2015). 따라서 창업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는데,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초기 창업과정의 다양한 활동은 그 결과가 장기간 모호할 수 있기에 꾸준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두 번째 회전이 빠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사이코패시 성향의 사람들에게 단시간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힌트를 줄 수 있으며, 결국 창업효능감과 관련하여 독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마키아벨리즘은 창업의지와 관련이 없던 것처럼 창업효능감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이유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창업보다 기존 조직에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은 생산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마키아벨리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이코패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은 타인의 니즈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성향이다(Twenge et al., 2008). 따라서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타인의 존경과 주목에 좀 더 강한 욕구가 작용하여 생산적 창업동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상대방을 이용하는 성향이다(Côté et al., 2011). 따라서 가설대로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코패시는 가설과 달리 생산적 창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향은 공감력이 부족하여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스스로를 위한 이득이나 자극에만 강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뒤이어 나오는 비생산적 창업동기에는 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생산적 창업동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넷째, 어둠의 3요소 중 나르시시즘은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은 앞선 결과처럼 타인의 존경과 주목에 신경 쓰기 때문에 이와 거리가 먼 비생산적 동기에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는 가설대로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두 성향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이용해도 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연구에서 성격요인, 그 중에서도 부정적 성향과 관련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둠의 3요소 중 하나의 성향만 조사한 기존 연구(e.g. Akhtar et al., 2013; Mathieu & St-Jean, 2013; Marino & Tucker, 2016)와는 달리 본 연구는 어둠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동기(Hmieleski & Lerner, 2016), 창업태도지향성과 창업의지(Do & Dadvari, 2017), 직원의 창의성 및 성과(Butler, 2015) 등이 어둠의 3요소와 함께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연구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창업효능감을 새로이 종속변수에 포함하여 선행연구의 범위를 보완·확대하였다.

성향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나르시시즘은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생산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키아벨리즘은 창업의지와 창업효능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적 창업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이코패시는 창업의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생산적 창업동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생산적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창업연구에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주로 긍정적인 요인들(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혁신성, 낙관성, 창의성, 셀프리더십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e.g., 김완재·정화영, 2007; 이승재·황보윤, 2010; 유봉호, 2013; 박재환·최민정, 2016; 강선자·변상해, 2017; 이정란·장규순, 2018).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창업연구에서 부정적 성격변인이라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 또한 국내 창업연구에서 부정적 성격변인에 대한 실증 연구를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교육자, 관련 실무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 교육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들에게 효과적이다. 시작은 1인일지라도 향후 기업이 성장하면 직원들도 증가한다. 좋은 기업은 단순히 훌륭한 리더십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팔로우십이 있을 때 가능하다. 히어로적인 면모가 필요한 초기창업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창업기업이 성장하여 조화, 협력, 화합 등이 필요한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 성향 때문이므로 리더십과 상호작용하는 올바른 팔로우십을 사전에 배워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깊이 있는 팀빌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많은 팀빌딩 교육이 주로 팀별 게임 및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팀웍의 기반이 되는 비전과 미션, 팀의 중요 가치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로 작성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생산적 창업동기와 관련 있는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 성향의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하다. 이들이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동기를 갖지 않도록 개인이 세운 미션과 비전, 가치들이 사회와 본인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창업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만일 팀이 아닌 1인 창업가라면 다른 1인 창업가들과 팀을 이뤄 서로의 작성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중심의 멘토링 이외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멘토링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한 창업가들은 비윤리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테라노스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이다. 그녀는 손가락 피 몇 방울로 260여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여 세상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효과는 곧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시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기에 끌리는 성향이므로 이들이 만일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더욱 윤리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부정적 성격변인 및 초기창업행동과 관련하여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상의 대부분이 저학년이라 그들의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이나 장년층 이상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둘째, 모집단의 지역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 세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창업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는 오직 성별과 창업교육경험에 대해서만 통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이나 가치관, 가정환경, 교육의 만족도 등 청년들의 창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다른 맥락에서도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보다 폭넓은 표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강선자·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국립국어원(2018). *마키아벨리즘*, Retrieved 2018년 4월 12일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420414>.
- 김동조(2007). 성격유형과 셀프 에피커시 그리고 성과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3), 17-28.
- 김병수(2015). 권력이 사이코패스를 만든다, *인물과사상*, 205, 171-183.
- 김완재·정화영(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 김해룡(2008).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이론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 21(6), 2393-2420.
- 김화성(2015). 사이코패시: 공감과 도덕적 책임성, *법한철학*, 77, 355-385.
- 기획재정부(2018).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Retrieved 2018년 6월 12일 from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15874&menuNo=4010100.
- 노자운(2015, September 26). *정부 지원금 사냥꾼 브로커를 아시나요*,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5/2015092502448.html.
- 명재규(2016). 최고경영자의 부정적 성격특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의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반성식·배근우·장성희(2013).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655-2677.
- 박수호(2013, April 8). *창조경제 웨방 놓는 지원금 사냥꾼*,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66545>.
- 박원우·김미숙·정성명·허규만(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 양현봉·조덕희·박종복(2009). *창업기업의 형태 및 성과 분석: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요인을 중심으로(554)*, 세종시: 산업연구원.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이범국·남정민·김주섭(2015). 해커톤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133-141.
- 이병량(2014). 관료의 나르시시즘 연구, *정부학연구*, 20(1), 5-34.
- 이승윤·김광현·박성훈·박현준(2015). CEO 나르시시즘의 비간접 측정 방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2), 491-503.
- 이승재·황보윤(2010). 단기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5(1), 19-44.
- 이정란·장규순(2018).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43-60.
- 이희수(2018, June 17). *취직 기약없이 돈벌이... '장검다리 알바'도 하늘의 별따기*,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81597>.
- 통계청(2018). *취업자수/실업률 추이*, Retrieved 2018년 6월 12일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 Processes*, 50(2), 179-211.
- Akhtar, R., Ahmetoglu, G., & Chamorro-Premuzic, T.(2013). Greed Is Good?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ubclinical Psycho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420-425.
- Babiak, P., & Hare, R. D.(2006). *Snakes in Suit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Bahn, S. S., Bae, G. W., & Jang, S. H.(2013). The Effects of Individual Invento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6), 2655-2677.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irley, S., & Westhead, P.(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 Boddy, C. R., Ladyshevsky, R. K., & Galvin, P.(2010). The Influence of Corporate Psychopath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7(1), 1-19.
- Brown, T. A., Sautter, J. A., Littvay, L., Sautter, A. C., & Beames, B.(2010). Ethics and Personality: Empathy and Narcissism as Moderators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5(4), 203-208.
- Buckels, E. E., Jones, D. N., & Paulhus, D. L.(2013). Behavioral Confirmation of Everyday Sadism, *Psychological Science*, 24(11), 2201-2209.
- Butler, J. C.(2015). The Dark Triad, Employee Creativity and Performance in New Venture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5(3), 54-59.
- Campbell, W. K., Goodie, A. S., & Foster, J. D.(2004). Narcissism, Confidence, and Risk Attitud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7(4), 297-311.
- Carter, N. M., Gartner, W. B., Shaver, K. G., & Gatewood, E. J.(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3-39.
- Chatterjee, A., & Hambrick, D. C.(2007). It's All about Me: Narcissistic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Their Effects on Company Strategy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 351-386.
- Christie, R., & Geis, F.(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ôté, S., Decelles, K. A., McCarthy, J. M., Van Kleef, G. A., & Hideg, I.(2011). The Jekyll and Hyde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regulation Knowledge Facilitates both Prosocial and Interpersonally Deviant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2(8), 1073-1080.
- Dahling, J. J., Whitaker, B. G., & Levy, P. E.(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achiavellianism Scale, *Journal of Management*, 35(2), 219-257.
- Do, B. R., & Dadvari, A.(2017). The Influence of the Dark Tri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Attitude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 Study among Students in Taiwan University,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22(4), 185-191.
- Dutton, K.(2012). *The Wisdom of Psychopaths: What Saints, Spies, and Serial Killers Can Teach Us about Succes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Ferreira, J. J., Raposo, M. L., Gouveia Rodrigues, R., Dinis, A., & do Paço, A.(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Greenbaum, R. L., Hill, A., Mawritz, M. B., & Quade, M. J.(2014). Employee Machiavellianism to Unethical Behavior: The Role of Abusive Supervision as a Trait Activator, *Journal of Management*, 43(2), 585-609.
- Higgs, M.(2009).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Leadership and Narcissism, *Journal of Change Management*, 9(2), 165-178.
- Hmieleski, K. M., & Lerner, D. A.(2016). The Dark Triad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An Examination of Unproductive versus 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4(S1), 7-32.
- Hunt, M. K., Hopko, D. R., Bare, R., Lejuez, C. W., & Robinson, E. V.(2005). Construct Validity of the Balloon Analog Risk Task (BART): Associations with Psychopathy and Impulsivity, *Assessment*, 12, 416-428.
- Jonason, P. K., Koenig, B. L., & Tost, J.(2010). Living a Fast Life: The Dark Triad and Life History Theory, *Human Nature*, 21, 428-442.
- Jonason, P. K., & Krause, L.(2013). The Emotional Deficits Associated with the Dark Triad Traits: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and Alexithym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32-537.
- Jonason, P. K., & Webster, G. D.(2010). The Dirty Dozen: A Concise Measure of the Dark Triad,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20-432.
- Jones, D. N.(2013). What's Mine is Mine and What's Yours is Mine: The Dark Triad and Gambling with Your Neighbor's Mone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 563-571.
- Kang, S. J., & Byun, S. H.(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85-96.
- Karabulut, A. T.(2016). Personality Trai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9, 12-21.
- Kim, B. S.(2015). Power Makes a Psychopath, *Inmul*, 205, 171-183.
- Kim, D. J.(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Self Efficacy and Organizational Outcom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3), 17-28.
- Kim, H. R.(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 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Applying the Big Five Factors Model and the

- Self-Leadership Theor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393-2420.
- Kim, H. S.(2015). Psychopathy: Empathy, and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77, 355-385.
- Kim, W. J., & Chung, H. Y.(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33-60.
- Lee, B. G., Nam, J. M., & Kim, J. S.(2015). The Effect of Hackaton Program on the Willingness of Entrepreneurship: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Team Cul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133-141.
- Lee, B. R.(2014). A Study on the Narcissism of Bureaucrat,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1), 5-34.
- Lee, H. S.(2018, June 17). *Without Promise of Employment...No Part-time Job*, Maekyung,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81597>.
- Lee, J. R., & Chang, G. S.(2018).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43-60.
- Lee, S. J., & Hwang, B. Y.(2010).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1), 19-44.
- Lee, S. Y., Kim, K. H., Park, S. H., & Park, H. J.(2015). An Examination of Validity for Unobtrusive Measure for CEO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2), 491-503.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iñán, F., Santos, F. J., & Fernández, J.(2011).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n Potential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3), 373-390.
- Marino, L., & Tucker, R.(2016). A Dash of Psychopathy May Help Women Entrepreneurs, *Entrepreneur & Innovation Exchange*, Retrieved June 14, 2018 from <https://eiexchange.com/content/128-a-dash-of-psychopathy-may-help-women-entrepreneurs>.
- Mathieu, C., & St-Jean, E.(2013). Entrepreneurial Personality: The Rol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 527-531.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2018a). *2018 The Overview of the National Budget*, Retrieved June 12, 2018 from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15874&menuNo=4010100.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2018b). *An Extra Budget Briefing for Youth Employment and Regional Plans*, Retrieved June 12, 2018 from http://www.mosf.go.kr/nw/mosfnw/mvpngesDetail.do?menuNo=4040300&searchNttId1=MOSF_00000000016644&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5.
- Myung, J. K.(2016). *Effects of CEOs' Negative Tra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Impacts of Organization's Perceived Role of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2018). *Machiavellism*, Retrieved April 12, 2018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420414>.
-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8). *The Number of the Employed and Change of Unemployment*, Retrieved June 12, 2018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Noh, J. W.(2015, September 26). *Do You Know the Government Aid Hunter and Broker?*, Chosun Biz,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5/2015092502448.html.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ark, S. H.(2013, April 8). *The Government Aid Hunters Who Disturb the Creative Economy*, Maekyung,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66545>.
- Park, W. W., Kim, M. S., Jeong, S. M., & Huh, K. M.(2007). Causes and Remedies of Common Method Bia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5(1), 89-133.
- Paulhus, D. L., & Williams, K. M.(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556-563.
- Piperopoulos, P., & Dimov, D.(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 Rokhman, W., & Ahamed, F.(2015). The Role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Islamic College Students in Indonesia, *Entrepreneurial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3(1), 29-42.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Twenge, J. M., Konrath, S., Foster, J. D., Campbell, W. K., & Bushman, B. J.(2008). Egos Inflating over Time: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76(4), 875-902.
- Van Praag, C. M., & Versloot, P.(2007). What Is the Value of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mall Business Economics*, 29(4), 351-382.

- Wennekers, S., Van Stel, A., Thurik, R., & Reynolds, P.(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93-309.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Yang, H. B., Cho, D. H., & Park, J. B.(2009). *Current Status of Start-up Companies and Performance Analysis Focusing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Employment Creation(554)*, Sejong: KIET.
- Yoo, B. H.(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Zettler, I., & Solga, M.(2013). Not Enough of a 'Dark' Trait? Linking Machiavellianism to Job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6), 545-554.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1265-1272.

The Impact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on Nascent Entrepreneurship: A Study of College Students*

An, Seung Kwon**

Choi, Min Jung***

Abstract

Government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has been very useful for many young people who start new ventures to chase their dreams. However, it has constantly been abused by unscrupulous people who intend to take advantage of monetary support. Why do some exploit it, while others make good use of it?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immoral personality traits in potential entrepreneurs, because entrepreneurship affects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the entire society and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subclinical psychopathy -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efficacy, and productive and un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based survey on university students who intend to start new ventures in the future, while pursu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 analyzed a total of 265 responses. We found that narcissism is the only factor tha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Narcissism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hile psychopathy has a negative effect. We also found that narcissis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s, while Machiavellianism h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Finally, we found that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have a positive impact on un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s.

KeyWords: Narcissism, Machiavellianism, Psychopathy,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 Unproductive entrepreneurial motiv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B8913575)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Kunsan National University, 770217ask@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Institute of Culture Convergence Archiv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jchoi1003@hanmail.net